

**2021년 국토교육 동아리
탐구보고서
(대. 지. 탐)
세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

2021년 11월

아름고등학교

I. 연구의 필요성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세종의 현재 모습만 보일 뿐 과거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지역의 학교 대부분은 신설학교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¹⁾ 따라서 학생들은 세종 지역이 원래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학교 생활 중 산발적인 지역 관련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주요 역사적 장소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세종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직전까지 어떤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²⁾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의 변화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이 국가의 균토균형 개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본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종의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거 세종 지역의 모습을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이전의 지형도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과거의 지역 상황을 시각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 균형개발 정책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의 도심 지역을 답사하여 수도권 과밀화의 현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지역 인근의 낙후지역 또한 방문하여 국토 안에서 존재하는 지역적 격차와 이질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생들로 하여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하여 탐구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는데 세종 지역의 과거 지형도를 활용한 입체 모형 만들기와 지역 답사활동이 그것이다. 두 활동 모두 참고 문헌이나 실내 자료 조사보다는 시각적 자료와 현장 중심의 답사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현장성과 공감각적인 탐구활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II. 연구의 방법

1. 세종시 개발 이전의 지형 모형 제작

세종 신도시(행정 중심 복합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2010년 1:5,000 지형도를 바탕으로 아이클레이를 활용한 입체 모형도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과거 이 지역이 주로 농업 기반의

1)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2012년 9월 15일 국무총리실 직원 150여 명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2실 11부, 2처, 3청, 2본부, 4위원회, 1심판원 등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학생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세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외부인이며 이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직전의 지역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특히, 신도시 지역에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촌락지역이었음을 이해하고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신도시 개발의 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한 달여 동안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교내에 전시하여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발전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지역 답사 활동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종의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을 탐방하여 두 지역의 차이점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신도심이 구도심에 비해 발전 정도가 높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가진 서로 다른 지역성을 파악하여 그 지역성을 활용하는 균형 발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의 도심 지역을 답사하여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통합사회 도시 단원의 내용과 연계하여 도심지의 밀집도와 집약적 토지 이용이 가져온 도시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 같은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세종에서 다소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의면 소재지를 방문하여 그 지역이 가진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 개발 방법은 무엇인지 이해한다. 이 같은 과정은 국토 균형개발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III. 본론

1. 세종시 개발 이전의 지형 모형 제작

가. 제작 과정

현재 시중에는 세종시의 1:5,000 지형도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지도의 등장으로 종이 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이를 제작하여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지도 제작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행히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국토지리정보원³⁾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문의를 통해 세종시 현재 신도심 중심의 1:5,000 지형도를 구입할 수 있었다. 단, 종이 지도의 특성상 현재의 지역정보를 그대로 반

3)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 잡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1958년 국방부 지리연구소로부터 출발하였다. 1974년 11월 1일 건설부 국립지리원으로 새롭게 창설되었고, 2003년 7월 26일에는 지금의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개명하여 현재 원내에 기획정책과, 운영지원과, 국토측량과, 공간영상과, 지리정보과, 국토조사과의 조직을 두고 국토측량 · 항공사진 촬영 · 국가기본도 및 수치지형도의 제작을 비롯하여 국토지리, 지형 등에 관한 다양한 일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의 기술에 관한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영한 종이지도는 구입하기가 어려워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도 중 가장 최신 지도라 할 수 있는 2010년 지형도를 구입하였다. 다행히도 우리 동아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세종시 개발 직전의 지역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모형제작에는 더욱 용이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의 지역정보를 반영한 최신 종이지도를 통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힘들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였다. 지형도 제작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지형도를 우드락에 부착하여 50m 단위로 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절단하였다. 절단한 지형도 조각들은 또 다른 우드락 판에 50m마다 높이를 다르게 하여 부착함으로써 높이 차에 따른 입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높이 차이를 반영하여 아이클레이를 색깔별로 붙여서 전반적인 지형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가지의 과정을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지로 시작한 활동이라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지형 모형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지만 미흡한 재료들만으로 나름의 결과물을 완성하였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되었다. 앞으로 있을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활동 결과물로 전시하여 전교생이 세종 신도심 지역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지형도 잘라 입체화시키기 → 2. 아이클레이 붙이기 → 3. 완성



<표 1> 지형 모형 제작 단계

나. 제작 후기 및 평가

세종시 신도심의 과거 모습을 지형 모형 제작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활동이었지만, 지형도 자체를 다룬다는 것이 거의 처음 있는 경험이어서 여러

면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등고선을 읽는 것, 지도 상의 다양한 지리 정보를 기호를 통해 이해하는 문해력이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국토를 이해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이클레이가 굳은 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져나가 자꾸 틈이 발생하는 등 재료 선정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고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내년에 있을 동아리 활동으로 국토 전반에 대한 지형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세종시의 원래 모습이 현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작은 마을들 몇 개만 제외하면 대부분이 논과 임야로 되어 있는 지형 모형을 보면서 개발을 통한 지역의 변화가 얼마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도 과거 지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촌리, 대평리 등 현재 신도심에서 쓰고 있는 지명의 다수가 원래의 이 지역의 마을이름에서 유래했음을 지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는 신도시로서의 세종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이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세종 시민에게 이 같은 노력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郷심을 심는 데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2. 지역 답사 활동

가. 세종시 원도심 지역(조치원읍) 답사 활동

세종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신도심 지역(동지역)과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의 소재지였던 조치원 등 구도심 지역(읍면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 두 지역의 지역격차나 지역민들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신도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로 과거 우리 지역이 충청남도 연기군이었을 때의 지역 문화나 모습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 지역의 중심지인 조치원읍을 탐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일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1) 활동 과정

실제로 조치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답사 경로를 설정하였다. 단순한 답사보다는 지역민들의 인터뷰도 진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다 보니 학생들이 탐방지역으로 세종전통시장(구 조치원시장)과 그 일대를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질문할지 토의한 다음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다

음과 같다.

번호	질문 내용	선정 이유	장소
1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거주 지역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	시장 내
2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품 구매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밝히기 위해	시장 내
3	어떤 상품을 구매하러 오셨나요?	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시장 내

〈표 2〉 전통시장 방문객 설문조사 질문 내용

또한, 시장에서 멀지 않은 지역 중 현재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인 조치원 문화정원을 방문하여 과거 낙후된 도심의 건물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신도심 지역이 가지지 못한 구도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조치원 문화 정원의 위치

2) 활동 후기 및 평가

학생들은 전통시장 탐방을 통해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인들,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래된 구도심의 한 칸에 세

련된 건축 공간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곳에서 다양한 문화 재생사업(콘서트, 영화상영, 플리마켓 등)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구도심이 가진 문화적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 내에서의 균형개발이 단순히 오래된 것을 없애고 새롭게 치장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재창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림 2〉 조치원 답사 활동 후기(패들렛 참고)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세종 지역이지만 신도심과 전혀 다른 지역 특성을 가진 원도심 지역 답사는 학생들에게 지역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 주었으며 신도심이 가지지 못한 원도심 지역의 장점들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나. 행복도시 전시관 탐방(세종 신도심 지역 답사 활동)

1) 활동 과정

현재 우리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아름동을 비롯하여 세종 동지역은 2008년 첫 신도시 개발 공사를 시작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마침 신도시 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LH 행복도시 전시관이 세종중앙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심 지역의 대표적 시민 휴식 공간인 세종중앙공원과 전시관 탐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도시 지역의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종중앙공원은 최근에 만들어진 근린종합공원으로 야구장과 축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시설 또한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소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 곳에서 세종 홍보 동영상을 만들게 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장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하였다. LH 행복도시 전시관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내부는 매우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전시관이었다. 2층 중앙에 세종 신도심 지역의 전체 모형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 전시 구역별로 세종시의 개발 과정 앞으로의 기대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2) 활동 후기 및 평가

신도심 지역 중 가장 최근에 형성된 도시 공원을 방문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지역 내의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도 쉽지 않았던 경험 있어 새로 조성된 도시 중심의 근린 공원의 방문은 도시 기능 중 시민들의 위한 여가 기능이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행복도시 전시관 방문은 세종시의 전반적인 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특히, 답사 후반부에 세종의 개발 계기, 세종의 생활권 구성 및 기능, 국토 균형 개발의 필요성에 질문지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단순한 전시관 방문이 아닌 지역 개발 과정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배움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행복도시 전시관 세종시 모형 앞 학생들

다. 수도권 답사 및 국토 발전전시관 탐방

1) 활동 과정

세종시의 형성 과정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서울의 주요 행정 기능 분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정책적 변화이기도 하므로 학생들에게 현재 서울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국토 균형 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 발전전시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국토 균형 개발의 역사와 현재의 진행 과정 및 미래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구 및 종로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서울 도심이 가진 기능적 특징을 확인하고 그 중에 서도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세종의 도시재생 사업과 비교도 진행하였다. 수도권 과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어디를 정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도심 지역을 관찰할 것인지를 학생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오송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타고 수서역에서 내린 후, 대중교통으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여 사전 답사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요 경로 중 서울 도시에 있는 국토 발전 전시관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토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마지막 일정으로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과밀화를 확인하고 주요 도시 재생사업 장소를 방문하여 최근의 도시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답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	장소	내용
08:30	오송역	오송역 집합 및 안전교육
09:00	오송역	출발
10:00	수서역	도착
10:00 ~ 12:30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관람 및 서울 지역별 밀집도 관찰
12:30 ~ 13:30	잠실역 인근	점심식사
13:30 ~ 15:00	국토발전전시관	국토발전 전시관 관람
15:00 ~ 16:30	광화문 인근	서울 구도심 밀집도 관찰 및 도시재생 시설 탐방
16:30	서울역	서울역 출발
17:30 ~ 18:30	오송역	오송역 도착 및 저녁식사
18:30 ~ 19:00	오송역	귀가 지도

<표 2> 수도권 답사 일정표

2) 활동 후기 및 평가

신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지금까지 지내 온 학생들에게 서울 답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시간이었다. 고속전철 역에서 내려 주요 장소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과 서울 도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글이나 미디어로만 봐 왔던 곳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진정한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막연하게 수도권에 과밀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서 수도권 기능의 분산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개발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답사 과정 중에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도시의 지역 분화나 접근성의 차이 등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지리 개념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림 4> 수도권 답사 학생 후기(패들렛 참고)

신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지금까지 지내 온 학생들에게 서울 답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시간이었다. 고속전철 역에서 내려 주요 장소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과 서울 도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글이나 미디어로만 봐 왔던 곳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진정한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막연하게 수도권에 과밀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서 수도권 기능의 분산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개발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답사 과정 중에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도시의 지역 분화나 접근성의 차이 등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지리 개념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국토 발전전시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국토 발전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거점 중심 개발에서 광역 개발 및 국토 균형 개발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변화된 국토 발전 개념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1층 기획 전시실에 마련된 자동차 자율주행과 국토 개발의 미래에 대한 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살아갈 가까운 미래의 국토 발전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발전전시관이 있는 덕수궁 인근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직접 서울 도심 지역을 관찰하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발전된 서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서울의 구도심 지역이 가지는 역사성을 동시에 확인하였으며 서울로 7017처럼 도시 재생 공간을 접하면서 세종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이 가진 수위도시로서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한 밀집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향후 계획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지리 지식과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실제적 경험과 노작 활동을 통해 체험적이고 다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번 동아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교사로서 늘 아쉬웠던 점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학생들이 교과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공간의 정보들과 특성들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단순한 정보 습득 활동이 아닌 노작을 통한 지형의 이해, 현장 답사를 통한 지역적 차이 및 특성 탐구 등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아쉽게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모든 활동들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여 계획한 답사지를 모두 둘러볼 수는 없어서 지역 내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의면 답사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본 탐구보고서에는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2학기 2회고사 이후 교육과정 유연화 주간을 통해 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낙후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발표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록 계획한 모든 활동을 기한 내에 실행할 수는 없었으나 당초 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교육적 결실들은 충분히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토대로 한 국토 균형 개발의 필요성이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층 더 성숙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본 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국토 전반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지리적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중심의 국토 교육동아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리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다짐해 본다.

V. 참고 문헌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https://www.sejong.go.kr/index.jsp>)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https://www.ngii.go.kr/kor/main.do>)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누리집(<http://www.balance.go.kr/base/main/view>)

패드렛(<https://padlet.com/dashboard>)

전국지리교사모임(2016).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 여행. 폭스코너

국토 교통부(2016). 도시 계획 현황 통계. 국토 교통부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미래엔